

## 루터의 성찬론 이해

문철영 (수정교회 담임목사, Ph.D)

### I. 들어가는 말

루터교는 세계적으로는 역사적인 면에서나 교세면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 교단이다. 세계에서 7600만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독일 3,760만, 미국 890만, 스웨덴 700만, 핀란드 460만, 덴마크 450만, 노르웨이 350만, 인도네시아 126만명 등이다. 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루터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에 부름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루터파와 개혁파는 1529년 마르그부르그에서 열린 회담에서 서로 결별하였다. 그 당시 결별하게 것은 15개조항 중 마지막 조항인 15조 성찬론 부분에서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973년에 와서 비로소 루터파와 개혁파가 스위스 로이엔버그에서 로이엔버그 합의문서를 채택했다. 기독교 예정론 성찬론 그리고 의화론을 포함한 중요 교리에 동의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강단교류 및 성찬식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로 43년만에 한국에서 개혁파 장로교목사의 자격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에 루터교 강단에 서게 된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루터교회가 여러 교단 중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의 시작에서 루터파교회와 개혁파교회를 필두로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루터파와 개혁파교회 장로교회의 양대 교단이 500년전 종교개혁 때처럼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성찬론에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츠빙글리에 대해 왜 그렇게 강한 반발감을 가졌는가? 루터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학자들은 동의한다. 루터는 스위스의 츠빙글리를 가까이에서 대할 수 없었다. 루터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자들인 열광주의자들의 입장에 성경을 해석하는 칼슈타트와 스타펜클과 츠빙글리를 같은 과라고 생각했다.

루터는 초기에 로마카톨릭의 7성례중 성찬성례와 세례성례 그리고 참회성례 세 가지만 인정하였다. 나중에 루터는 성찬미사와 세례미사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성찬미사 중에서도 가톨릭의 화체설은 거부하였다. 1525년까지 성찬론에 있어서 루터의 적은 로마가톨릭의 화체설이었다. 그러나 1525년 이후에 그동안 외부와의 영적 전쟁을 하던 루터에게 내부로부터 오는 적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칼슈타트를 비롯한 스위스 개혁파의 츠빙글리와 오이콜람부스가 주장하는 성찬에 대한 상징적 해석이었다. 루터가 개혁파 성찬론의 상징적 해석에서 발견한 위협성은 주관주의적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것이었다. 루터에게 성찬의 상징적 해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으로 된 자신에게 빠져드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었다.<sup>1)</sup>

루터는 1484년 11월 10일생이고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생이다. 두 사람은 1세대의 차이가 난다. 칼빈과 루터는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칼빈은 루터를 존경하였지만 루터는 칼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루터에게 보내는 칼빈의 편지를 칼빈의 친구 멜랑히톤이 그 이후에 루터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루터의 생애 말기에 가서 칼빈의 성찬론에 대한 문서를 그가 읽

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참 잘 읽었다.” 그리고 “쯔빙글리와 오이콜람부스가 진작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논쟁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sup>2)</sup>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신교 개혁파 출신의 한 사람으로 루터교회에 감사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 이전 1500년 동안 물려받은 기독교 유산을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잘 물려준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두 가지 기둥인 성례와 말씀 전통이다. 말씀전통은 한국의 개혁파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 중 중요한 다른 한 기둥인 성찬성례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안타깝게도 이같은 전통은 선교초기에 개혁파 선교사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와 제네바의 교회가 개혁파교회로 일치를 본 이후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 성찬이 1년에 2차례 거행되는 것은 제네바 교회에서 1년에 4차례에 비하면 횡수가 절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은 칼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칼빈의 본래 교회가 성찬식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교회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찬식의 횡수를 4주에 1번이라도 하자고 제안하였다. 결국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은 칼빈의 제안을 무시하고 성찬식의 횡수를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를 되돌아 볼 때에 한국교회는 짧은 선교역사에서 많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전에 중세 가톨릭교회가 가졌던 미신적 신앙과 부패를 포함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가 본질적

1) P.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옮김, 서울:성광문화사, 1994, 525.

2) 김인주, “칼빈에 대한 루터의 평가,” <http://m.blog.naver.com/r1xkr1xk/150002786230>.

요소보다 외적인 요소에 더 치중한 활동을 한 결과로 본다. 그동안 경시되어 왔던 본질적 요소가 다름 아닌 성찬전통이다.

그런데, 루터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 예배 중에 성찬전통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루터의 성찬론의 발전 과정은 1524년을 전후로 하여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단계의 성찬론은 로마 가톨릭에 반대요, 두 번째 단계의 성찬론은 칼 슈타트를 비롯한 열광주의자들과 쾰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스위스 개혁파들에 대한 반대였다.<sup>3)</sup>

## II. 1524년 이전의 루터의 성찬론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로마 가톨릭의 성례를 비판하면서 7가지 성례 중 세례와 성찬 그리고 참회만을 성례로 인정하였다.

그 일곱가지 사크라멘트가 이미 카톨릭교회의 교의로서 공인된 바 있었다. 곧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그리고 임종시의 도유식을 포함하여 7가지를 말하여왔다. 루터는 성례전으로서 두 가지를 들으니 곧 세례와 성찬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 의미에서 참회까지 성례로 보았다.<sup>4)</sup>

뿐만 아니라 루터가 주장한 첫 번째 교회의 포로는 평신도들이 잔을 금지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해를 거듭하여 동일한 독재에 의해 한 가지 종류 떡만을 받도록 강요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가 완전히 상실 되었다.<sup>5)</sup>

루터가 지적한 두 번째 포로는 인간의 발명품일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곡해인 화체설이었다.<sup>6)</sup>

그러므로 떡을 떡의 외양이나 우유성의 의미로, 포도주를 포도주의 외양이나 우유성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다.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외양과 우유성의 의미로 이해하려고 하는가? .... 더군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조철학이 지난 3000년 동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기까지 교부들이 화체설을 지난 1200년동안 어느 시 또는 어느 장소에서도 언급하지 않고서 교회는 참된 믿음을 지켰다.<sup>7)</sup>

세 번째 교회의 포로는 성찬을 희생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셋 중에 가장 사악한 남용이 세 번째 것이라고 했다.

이 성례의 세 번째 포로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 중 가장 사악한 남용이다. 그리고 그 남용의 결과로 미사가 선행과 희생이라는 이것 보다 더 오늘날 교회를 확고하게 믿거나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입장은 없다. 그리고 이 남용은 그것에 연결된 끝없이 많은 다른 남용들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 성례의 믿음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거룩한 성례는 단순한 상품시장,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하게 되었다.<sup>8)</sup>

그렇다면, 로마카톨릭의 화체설을 비판한 루터는 성찬론을 어떻게 이해

3) Cheol-Young Moon, *Calvin's View of the Lord's Supper in the Light of its Controvers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Theology, 2014, 33-34; P. Althaus, *opcit.*, 513.

4) 루터, “교회의 바벨론 감금,” in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지원용 옮김, 서울:킨콜디아사, 1993, 138.

5) Luther,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LW 36:28.

6) Cheol-Young Moon, *opcit.*, 36.

7) Luther,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LW 36:31.

8) *Ibid.*, 35.

하였는가? 루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화체설의 자리에 떡과 잔은 그대로 있고 변형되지 않는 떡과 잔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공제사상을 도입했다.<sup>9)</sup>

그리스도에 관하여 참된 것은 성례에 관하여도 참되다. 신성이 육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인성이 변화될 필요가 없고 신성이 인성의 우유성 아래에 포함 될 필요도 없다. 두 본성이 다 그들의 완전성으로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인 반면에 이 하나님도 사람이다”라고 말해진다.<sup>10)</sup>

루터는 유언을 죽을 예정인 자에 의해서 한 약속으로서, 먼저는 유언자의 죽음과 관련되고 둘째는 유언자에 의해 명명된 것과 그리고 상속에 대한 약속과 관련되듯이 성찬시에 예수님의 제정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나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sup>11)</sup>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약속의 기념표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약이며 떡과 포도주는 성례가 되며 여기서 언약이 성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다.<sup>12)</sup> 루터의 경우,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적인 양식과 음료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제적인 의미는 표징으로서 죄사함의 약속을 확신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 “말씀을 가진 자는 표징없이도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진 자는 성례전 없

이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계약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례전에 죄사함이 있게 된다”라는 루터의 결론을 알트하우스는 인용하면서 루터의 성찬론의 중심부에 죄사함이 성례의 은사로써 존재한다고 하였다.<sup>14)</sup>

루터는 “그리스도 몸의 복된 성례”(1519)에서 성찬시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영적인 몸이란 그리스도가 중시하는 신자들간의 사랑의 교제이다.<sup>15)</sup> “영적인 몸을 믿는 믿음이 자연적 몸을 믿는 믿음보다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례에서 영적인 것이 없다면 자연적인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러나, 떡, 포도주, 굶,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의 오용의 결과로 전 신자들의 공동체가 입는 손해는 저주이기 때문에, 루터는 오용된 성찬에서 사효론(opus operatum)과 인효론(opus operantis)을 거부하였다.<sup>17)</sup>

루터의 초기 성찬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떡과 포도주는 사랑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과 사랑의 교제로 바뀌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몸과 피의 입재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에 연합 그리고 신자들과 신자들간에 연합에 매개적 수단이 되었다.<sup>18)</sup> 루터는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음식물을 먹는 사람과 음식물과 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닌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13) Althaus, opcit., 517.

14) Ibid., 519.

15) Luther, “Blessed Sacrament of Body of Christ,” LW 35:62.

16) Ibid., 35:62.

17) Ibid., 35:63.

18) Althaus, opcit., 516.

9) Althaus, opcit., 514.

10) Luther,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LW 36:35.

11) Luther, “The Captivity of the Church,” LW 36:38.

12) Ibid., 44.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전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과 교제에 대해 더 잘 보여 주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빵과 포도주의 이 형태를 지정하셨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은 그와 음식물의 연합보다 더 친밀하며 깊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는 그 사람과 한 실체가 된다. 못, 아교꿀, 밧줄 등과 같은 것으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대상의 실체로 서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sup>19)</sup>

요컨대, 루터는 성찬의 축복은 교제와 사랑으로서 이중적 의미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들에게 참여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sup>20)</sup>

루터의 초기 성찬론에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일어나는 상호 교환이 있다. 이 상호교환은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즐거운 교환 그리고 칼빈의 놀라운 교환과 흡사하다.<sup>21)</sup>

모든 신인들과 함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에 의해 스스로 우리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죄, 죽음, 그리고 모든 악과 대항하여 싸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같은 사랑의 불을 점화시키므로써 우리는 그의 형체를 입고 그의 의, 생명, 그리고 축복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축복과 우리의 불행의 상호교환을 통해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떡, 한 몸, 한 음료가 되며, 모든 것을 공유한다.<sup>22)</sup>

19) LW 35:58, 59.

20) Opcit., LW 35:67.

21) 1519년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루터가 즐거운 교환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그런데, 동일한 연도에 루터는 상호교환이란 말이 “The Blessed Sacrament of the Holy and True Body of Christ, and the Brotherhoods”에서 사용되고 있다. 칼빈이 성찬론에서 사용한 놀라운 교환은 루터의 사상과 아주 흡사하다.

22) LW 35:58.

정리하자면, 루터는 1524년 전까지 로마카톨릭 화체설의 터무니없음을 공격하였다.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과 함께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였다. 기독교 1200년의 역사에서 교회가 교부들의 가르침대로 지킨 참된 믿음 속에는 화체설이란 이름은 들어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화체설 이론은 약 300년 사이에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조철학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루터가 화체설을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명백한 성례의 오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성례의 오용인 화체설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성찬시에 변하지 않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속에 그리고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적으로 임재한다는 공재설을 대치하였다. 루터의 경우 초기 성찬론에서 성찬시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이며 그리스도와 신자간에 연합된 몸일 뿐 아니라 신자들 간에 교제이다.

### III. 1524년 이후의 루터의 성찬론

1524년 전까지만 해도 루터는 성찬론에서 스위스의 쾰빙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sup>23)</sup> 그러나, 1524년 말경에 요한복음 6장을 토대로 “이것이 나의 몸이며 이것이 내 피다”는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쾰빙글리에게서 느끼는 위협감이 루터에게는 교황의 추종자들에게서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sup>24)</sup>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열광주의자에게 반대하여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굳게 서 있다”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쾰빙글리와 그의 추종자들을 마귀의 세력으로 간주했다.<sup>25)</sup> 그렇

23) Cheol-Young Moon, opecit., 39.

24) Ibid., 39.

25) Ibid., 39.



다면 루터는 왜 쾰링글리가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는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위협을 느꼈는가? 루터는 로마가톨릭 교황 추종자들이 성경을 풍유 및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해석자의 독창성을 보여주기 위한 원숭이의 장난”이라고 비판하였다. 루터는 성찬시에 제정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유 및 비유적 해석에 의해서 인간적 발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루터가 상징설을 거부한 것은 인간의 떡과 포도주의 변질이라는 아이이디어로 된 화체설 못지않게 상징설이 실체와 단절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고안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은 사람의 눈을 멀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나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찬시 제정의 말씀에 의해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한 소년이 아버지를 따라 신앙고백이나 주기도문을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둡기운데 그리고 눈이 먼 상태에서 단순히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기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서나 어떤 언어에서도 결코 비유가 아니었던 솔직하고 명료한, 공통적이며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앙으로써 파악하고 이성을 눈멀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여야 한다.<sup>26)</sup>

루터는 쾰링글리를 비롯한 스위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회상으로서 성찬 이해는” 곤경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보다 회상과 사랑에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도리어 오로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라고 하였다.<sup>27)</sup>

26) Althaus, opcit., 530; 재인용. 26,439,31.

27) Althaus, opcit., 532.

그리스도에 관한 너희의 인식과 회상이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기, 순수한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겠는가? ....그러한 열정과 진지함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회상과 인식을 실행했다면,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다.<sup>28)</sup>

루터는 성만찬 주석에 있어서 제정의 말씀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대로 이해되 다른 해석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성찬론의 주석은 고린도 전서 10장과 11장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알트하우스에 의하면, “루터의 성만찬 제정사 주석에 관한 한 우리는 루터가 그의 미를 바울 즉 고전 10장과 11장을 근거로 하여 확신하게 하였다.”<sup>29)</sup>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 곧 이 떡을 향유하는 자는 많은 보배들 중에서 공동의 보배로 그리스도의 몸을 향유한다”고 함으로써 루터는 제정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나 비유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였다.<sup>30)</sup>

그 다음으로 사도신조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쾰링글리에 반하여 루터는 하나님의 편재사상으로 대응하였다.<sup>31)</sup> 쾰링글리의 경우 그리스도는 심판 때까지 하늘 우편에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올 수 없다. 그러나, 루터의 경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우주의 온 땅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계신다. 루터의 경우 “하나님 우편”이란 “하나님의

28) Ibid., 532; 18,195,23;203,3

29) Ibid., 522.

30) Ibid., 523-524.

31) 이양호, “루터의 성례론” in <http://m.blog.naver.com/yyduk/220622636024>.

이양호에 의하면, 루터는 오캄의 존재방식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입재가 가능하다. 오캄은 중세 시대의 유명론자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방식은 첫째 locally(장소적으로) 또는 circumscriptively, 둘째, definitively(결정적으로), 셋째, repletively(가득 채우면서)가 있다.

전능하신 권세”로서 어디든지 편재한다. 알트하우스가 인용한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 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인데 이것은 동시에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나, 모든 장소에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모든 장소에, 가장 자그마한 나무 이파리에도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sup>32)</sup> 루터의 경우, 이같은 이유로 성찬시에 그리스도는 떡과 함께, 속에, 그리고 아래에 실제적으로 임재할 수가 있다.

#### IV. 루터의 성찬론 종합 및 결론

루터의 성찬론은 논쟁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과 논쟁을 하였고 나중에는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적들인 쾰빙글리를 비롯한 스위스 신학자들, 칼슈타트를 비롯한 독일의 신령파들의 상징 및 영적 해석과 논쟁을 하였다. 루터의 성찬론이 이같은 논쟁을 통하여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리스도와 연합 및 신자들 간에 교제라는 초기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도리어 논쟁을 통해서 루터의 입장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 졌다고 보는 편이 낫다. 그 이유는 루터의 성찬론이 단순히 성찬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루터의 신학의 종합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와 연합 및 신자들 간의 연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프로테스탄트 진영과 일치를 도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상호간에 소통의 부재였다고 본다. 당시 루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긴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의 경우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늘의 그리스도와 성찬에 참여하는 땅의 신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

32) Althaus, opcit., 152.

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이루는 구원론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먼저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성찬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찬신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류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임재한다.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었고 양성교류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쾰빙글리가 사도신경 주석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심판때까지 지상으로 내려올수 없다”한 전제에 얽매이지 않았다.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 쾰빙글리의 상징설에 의한 성찬시의 회상으로는 죄용서의 은사의 주체인 그리스도와 단절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와 실제적 만남위해 하늘과 땅의 거리를 좁히는 길로서 하나님 편재한다는 편재사상으로 사도신경의 “하나님 우편에”를 주석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편재하실 수 있는 분이 동시에, “우편에”라는 말은 “전능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성찬시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은 인성과 신성의 분리없이 임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기독교론적 해석으로 성찬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땅의 신자간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과 포도주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는 가톨릭의 화체설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론적으로가 아닌 성령론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땅의 신자들간의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 떡과 잔의 상징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비한 연합을 주장하였다.<sup>33)</sup>

먼저, 루터에게서,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제정의 말씀은 루터가 논쟁할 때에 요새였으며 성찬에 대한 바울의 주석인 고전 10장과 11장이 성찬논쟁에서 토대가 되었다.<sup>34)</sup>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그리

33) Cheol-Young Moon, opcit., 144.

34) Althaus, opcit., 522.

스도의 말씀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입으로 문자와 말씀과 함께 제정된 것이다.”<sup>35)</sup>

두 번째로, 루터의 경우 그리스도의 실체적 임재가 주된 관심사였다.<sup>36)</sup> 로마 가톨릭의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가 변형되는 화체도 아니었고 스위스 신학자들과 신령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회상으로서 성찬도 아니었다. 루터의 경우, “성례전의 의미가 인간의 회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추는 것”이라고 했다.<sup>37)</sup> 알트하우스에 의하면 루터의 경우 “실재적 임재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에 따라 육체적으로 임하였다.<sup>38)</sup> 루터의 경우 그리스도가 육체의 모양으로 계신 것은 인간들의 접근 가능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인 그리스도의 온 몸 가운데서 인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는 숨어계신 가운데 초자연적 방식으로 임재한다.<sup>39)</sup> 루터의 경우, 그리스도는 인성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제단에 있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임재한다.<sup>40)</sup>

세 번째로, 루터에게서 성찬의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적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입으로서”라고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을 시행하고 말하면서 성찬을 집례할 때이다.<sup>41)</sup> 이 때에 결정적인 말씀이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이다. 루터에게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들에게만 구원을

35) Ibid., 525.

36) Ibid., 531.

37) Ibid., 532.

38) Ibid., 533.

39) Ibid., 534.

40) Ibid., 539.

41) Ibid., 540.

일으키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독이 된다.<sup>42)</sup> 루터의 경우, 성례전의 참된 은사는 죄 사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죄사함에 대한 보증이다. 루터의 경우 성만찬의 효과는 신앙 곧 새 생명을 강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루터의 경우,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보증과 함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안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이다.<sup>43)</sup>

이상과 같이 살펴본 루터의 성찬론은 루터신학의 종합의 결산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개신교의 아버지인 루터의 정신을 성찬론을 통해서 맛보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감사하다. 루터 당시 그 중요성 때문에 논쟁이 쟁점이 되었고 교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성찬이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경시되고 있다. 루터교 총회가 마련한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통해 마련한 잔치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두 본질적 기둥 중 하나인 성찬성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42) Ibid., 541; 26, 353, 27.

43) Ibid., 543.